

‘애물단지’ 순천 트롤리 시티투어 버스 결국 매각

순천시, 관광 활성화 위해 2018년 8억4000만원 들여 도입 이용객 저조·손실보전금 문제·운영비 부담 2019년 운행 중단

순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트롤리 시티투어 버스가 이용자 감소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이 버스는 2018년 9월 도입된 이래 이용자 저조와 운영을 맡을 업체를 찾지 못해 운영 중단되는 등 ‘애물단지’로 꼽혔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시티투어 버스인 ‘트롤리’의 불용을 결정하고 입찰 공고에 나섰다.

순천시는 2018년 위탁업체와 각각 49%, 51% 비율로 투자해 미국 길드사에 8억 4000만원을 들여 트롤리 버스를 주문 제작했다.

트롤리는 친환경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버스로, 도심 전차형 목조구조로 이뤄져 있다.

트롤리는 2018년 9월부터 순천역을 시작으로 연향동 패션거리,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웃장, 문화의 거리, 버스터미널까지 9곳을 하루 10회 40~60분 간격으로 운행했다.

첫 도입 시기인 2018년 9월 한 달 900명이던 이용객은 다음달 204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1월 1758명, 12월 601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12월 기준으로는 하루 20명 남짓이 이용했다. 1회당 2명이 탑승한 셈이다.

승객 급감에 따라 순천시는 2019년부터 운행 횟

수를 하루 10회에서 2회(화·일)로 줄였고 정치역역시 9곳에서 6곳으로 변경했다.

2019년 연 이용객이 1만 1416명으로 늘었지만 최고 이용객이 1422명(10월), 최저 이용객이 537명(12월)으로 월별 편차가 커 안정적 운영이 어려웠다.

손실보전금도 문제가 됐다. 순천시는 계약 당시 위탁업체와 이용객이 없더라도 운행 경비 전액을 보전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순천시는 손실보전금으로 위탁업체에 2018년 하루 36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에는 운행횟수를 줄이면서 하루 33만원으로 인하했다.

급기야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1월 432명, 2월 231명으로 역대 최저 이용객 수를 기록했다.

결국 순천시는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2018년~2020년 3월)이 끝남과 동시에 트롤리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수차례 위탁업체 공고에 나섰지만 3차

레 유찰됐다.

이후 순천시는 2021년 위탁업체로부터 트롤리 지분을 사들이면서 전체 지분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위탁 공모에도 말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공과에서 회계과로 관리 담당부서가 이관되면서 사실상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5차례 유찰된 트롤리는 현재 각 6540만원, 8230만원으로 책정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트롤리 이용자 수는 감소한 적이 없으며 2020년 코로나와 겹치면서 운행이 어렵게 됐다. 그동안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위탁업체와의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순천만 습지와 낙안읍성 등을 누비는 순천 시티투어 버스는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나체 자전거’ 사망 추모 외국인 유학생 침묵행진

전남대 캠퍼스에 나체로 자전거를 타고 활보해 경찰에 조사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침묵행진을 했다.

27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날 캠퍼스에서는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 수십여명이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를 추모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침묵 행진과 함께 묵념을 했다.

이들은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업무 전반에 걸쳐 직면하는 연구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말에도 쉬 수 없는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측은 “국제협력과 외국인 전담팀이 마련돼 있고 외국인 신입생 적응을 돕는 ‘버디’ (멘토·멘티 활동), 인권센터, 외부 심리상담연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조선대 대동제 시작을 앞두고 대운동장 주변에서 소방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영호 통일장관, 조선대서 대북 정책 특강

토크콘서트도 개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실상과 대북 정책에 대한 특강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27일 오후 2시 30분께 조선대 경상대 이주현관에서 ROTC학군단과 군사학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민 6351명이 알려진 북한의 실상’을 주제로 김 장관의 특강과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김 장관은 “통일부 인식조사 결과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김 장관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건강한 통일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토크콘서트에 끝난 후 지역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진 김 장관은 “탈북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주시 남구가 진행하고 있는 ‘통일효도열차’에 대해 “지자체가 통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목포에 개관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통일부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남구뿐만 아니라 전남도 등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원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뉴진스” 보자” 조선대 캠퍼스 새벽부터 줄서기 ‘진풍경’

대동제 개막...안전관리 만전도

광주지역 5월 대학 축제금지 금기를 깬 조선대의 대동제 첫날 캠퍼스가 인파로 가득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공연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학생들이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27일 조선대 총학생회 ‘시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조선대 대동제 GRACIA’ 개막식이 열렸다. 축하공연에는 불발간사춘기, 크래비티, QWER과 뉴진스가 공연한다.

뉴진스가 출연한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재학

생과 외부인들이 장사진이 축제 무대가 마련된 대운동장을 빙 둘러쌌다. 돛자리를 펴고 새벽부터 줄을 선 학생들도 있었다.

총학생회는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입장 팔찌를 제공하고, 재학생과 외부인이 따로 줄을 서도록 했다. 입장이 시작된 오후 2시께 재학생 대기줄은 900여m에 달했다.

자신을 뉴진스의 팬인 ‘버니즈’라고 밝힌 이모(여·20)씨는 “뉴진스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새벽 5시부터 기다렸다. 그래도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고 혀를 내둘렀다. 이씨는 한낱 더위에 땀을 흘리면서도 “뉴진스를 볼 생각에 너무 기대된다”고 말

했다.

초청가수 공연을 1시간 앞둔 오후 6시에는 대운동장이 가득 차고 출입통제선이 설치된 잔디밭까지 공연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로 북적였다.

조선대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당국도 안전사고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조선대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 300여명이 안전관리를 맡았고 경찰도 기동대 110여명을 배치했다.

동부소방도 20명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안전 사항을 체크했다. 행사장 입구에 ‘동부소방서 현장안전본부’를 마련하고 비상근무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지법서 한국건설 회생심리 열려

유동성 위기로 회생신청을 낸 한국건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27일 광주지법 별관 205호실에서 파산1-2부(조영범 수석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심리에서 한국건설 정승용 대표이사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했다.

그는 “최근 공사·인건비가 오르고 자재 수급이 힘들어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건설업체에게 채무인수가 몰려 유동성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회생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건설은 현재 총 11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중 5곳의 현장에서 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건설은 3년간 현재 공사현장에 집중해 회생절차를 마무리 하고 4년 이후에 새로운 공사

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관리위원 등은 정 대표에게 한국건설이 조화와 자체 시행사들의 대여금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꼽으며 리베이트 금액인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정 대표는 “리베이트는 전혀 아니다”면서 “지역주택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에 대여금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사업을 떠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추가 증빙 자료 제출 기한을 정하고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883억원)를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부채 282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달 말 회생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